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나서

임실군, 올 상반기 방제사업 1519여본 벌채 3월 완료

임실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에 돌입한다. 군은 소나무의 조직을 파괴하여 말라죽게 만드는 이른바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2007년 덕치면 물우리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읍·면 31개 리 15,492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

로 지정된 상태다.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월동기인 3월까지 반출금지구역 내 재선충병 감염목 등 피해 고사목과 기타고사목 1,519여본의 단목을 벌채할 계획이다.

시료를 분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여부를 계속 조사하면서 방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충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으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하여 나무의 수분이동을 방해하고 조직을 파괴하여 결국 나무를 말라죽게 한다. 이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고 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해마다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세한 신고문의는 임실군청 산림공원과(640-24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읍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추진

순창군이 기초생활 서비스 확대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모계획을 토대로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 소재지를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순창읍과 북흥면을

시작으로, 2013년에 생치면과 구림면 등을 비롯 지금까지 8개 읍면이 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유등, 적성, 풍산면 등 3곳이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순창군의 11개 읍면 모두가 소재지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18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차선과 보행자로를 개선하고 안전시

설 확충, 세이프 워터, LED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에도 주안점을 뒀다.

특히 유등면은 섬진강이라는 관광인프라를 활용해 자전거 쉼터센터, 섬진강 두비퀴 워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광객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유등·적성·풍산면의 소재지 정비를 마무리 짓게 되면 11개 읍면 소재지 정비를 마치게 된다"면서 "전국적으로도 전체 읍면 소재지를 정비한 유일무이한 군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남원시는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95동, 빈집정비사업 107동, 희망하우스 10동,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29동 등이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하는 비용으로 최대 2억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는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동당 2천만원 지원해 5년간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할 계획이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는 시

비와 복권기금 50%로 총 5억1,600만 원을 확보해 가구당 4백만원 범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불량주택 지붕, 벽체의 보강 및 보일러, 전기·가스시설 등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광인 남원시 건축과장은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내년 산림분야 농림사업 19일까지 신청

순창군이 2020년도 산림분야 농림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마감한다. 대상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6개 분야

다. 지원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8개 종류 79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며 해당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저온피해 등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냉 난방시설, 관정 관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산림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의 옛 기록을 찾아서

순창군,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

순창군이 옛 모습을 기억하고 이 기록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

공모 대상은 1980년대 이전 순창의 모습과 생활상, 한국전쟁과 관련된 개인 소장 기록물이다. 각종 문서자료(일기, 편지, 증명서, 메모, 책자 등)와 시청각류(사진, 필름, 동영상 등), 각종 인쇄물(포스터, 전단, 엽서, 월급봉투 등) 및 박물관(신분증, 배지, 상장, 상패 등) 등이 해당된다. 공모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공모전과 전시회를 마친 후에 응모자에게 반환한다.

접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만원), 우수상 4명(각 10만원), 장려상 10명(각 5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입상작은 전시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응모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www.sunchang.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순창군청 행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순창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만큼 과거를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역사적인 기록 자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춘향골 햇감자 출하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는 지역이 주산지인 한겨울 추위속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재배한 춘향골 햇감자를 본격 출하하고 있다.

춘향골 햇감자는 지난달 말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난 12일에는 김의기씨 등 3농가에서 11톤을 수확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를 통해 선별, 소비자에게 인기에 띄어 공급되었으며, 가격은 20kg들이 박스당 4만원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가을에 수확한 저장감자에 비해서는 2~3배 높은 가격이다.

금지·송동·수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토양으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장에 좋은데다, 농민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축적으로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맛 좋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인열, 이영면 지역에서 생산된 춘향골감자를 공급해 겨울철에도 햇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갖춰 시설재배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남원지역 햇감자는 올해 240농가가 95ha를 재배해 50여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이 금지면장은 "감자 출하를 시작으로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과수, 축산 등 전국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적극 홍보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영정·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합장을 위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2019년도에는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3항 개정(2017.10.31)에 의해 2018년 2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정·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합장도 국립묘지에 안장·안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도 봉안할 수 없었다.

이에 윤명석 원장은 신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유골 안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 이해 및 홍보 강화로 임실호국원 봉안시설인 제2충렬당 개인단에 모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